

# 미국 남부 가정식 '케이준 스타일 음식' 을 접하다 샤이바나

이 달의 맛집은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살려 지난해 오픈한 미국 남부 가정식 식당, '샤이바나'이다. 식당 이름인 '샤이바나'는 부끄럽다는 뜻의 'shy'와 고릴라 캐릭터 '바나'를 조합했다고 하는데, 깨끗한 음식만 먹는 고릴라가 수줍어하며 손님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담아 식당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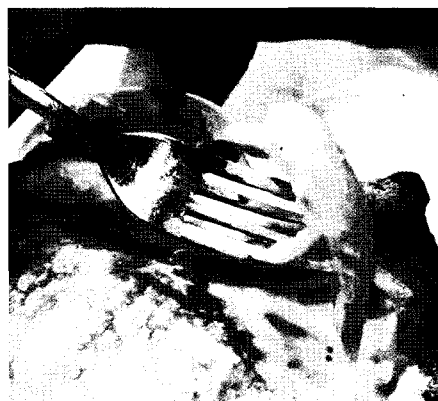
조 해 인 기자



매콤한 크림소스가 특색인 루이지아나 치킨 파스타



진한 치킨 수프 위에 패스츄리를 씌운 뒤 오븐에 구운 정통 미국 가정식, 치킨 팻파이



닭고기 살과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 더욱 맛있는 치킨 팻파이

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흔히 접했던 '케이준'은 캐나다에 살던 프랑스인이 미국 남부 루이지아나주로 강제 이주하면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음식을 뜻한다고 한다. 마늘, 양파 등 매콤한 양념,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나 우리에게서는 버터가 들어간 비스킷, 치킨샐러드, 파스타 등이 알려져 있다.

### 줄서서 기다려 먹는 독특한 음식

샤이바나의 메뉴는 정통 미국 남부 가정식, 집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에게 그 맛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말이면 데이트족이나 가족단위 손님이 줄을 잇는다. 필자가 방문했던 주말에도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며, 미리 들러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려면 일찍 방문하는 것이 필수다.

5~6개 남짓한 테이블은 항상 손님으로 가득 차 토요일 늦은 오후 브레이크 타임을 모르고 방문한 필자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신 다음날은 12시가 되어 도착했음에도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근처에서 산책을 해야 했다. 대체 이렇게 기다려야 맛 볼 수 있는 그 맛은 과연 어떨지 너무 궁금했다.

### 닭고기 메뉴가 많은 샤이바나

일반 식당에서 닭고기 요리는 1~2가지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에는 닭고기 메뉴가 다양하다. 닭고기 음식 전문점이 아니지만 케이준 스타일의 음식이 주로 가금류를 재료로 한 음식이 많았다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닭고기 요리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은 대부분 느끼한 편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주 생각난다며 찾아오는 마니아층이 많다고 한다.

샤이바나의 독특한 요리는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1. 깔끔한 사이바나의 주방    2. 식전에 제공되는 콘샐러드, 코울슬로우, 할라피노와 피클    3. 사이바나 내부    4. 케이준 치킨 샐러드

이 많기에 그 인기가 더 높다. 미국 남부 가정식이라는 컨셉에 맞게 음식 스타일링도 식상한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필자는 두툼한 치킨살을 튀겨 얇은 케이준 치킨 샐러드, 매콤한 크림소스로 맛을 낸 루이지아나 치킨 파스타, 치킨 팟 파이를 주문했다.

가장 먼저 나온 치킨 샐러드는 튀김옷을 입히지 않은 매콤한 향의 두툼한 닭고기가 신선한 야채와 어우러진 샐러드였다. 야채의 신선도가 매우 좋았고, 샐러드 소스도 시판 소스보다 상큼했다.

루이지아나 치킨 파스타는 매콤한 크림소스가 이색적이었다. 필자 역시 다양한 파스타를 먹어보았으나 크림소스와 매운 맛의 조합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터라 어떤 맛일까 궁금했다. 솔직히 닭고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주문했는데, 주황색 소스의 색감이 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스맛은 물론이고 닭고기 튀김이 2장이나 얹어져 너무 푸짐했다. 이 메뉴 역시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마지막으로 나온 치킨 팟 파이는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음식이다. 미국에서 아이가 아플 때 엄마들이 치킨수프를 끓여준다는데, '그 수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치킨 팟 파이는 진한(정말 진하다) 치킨 수프 위에 패스츄리를 씌운 뒤 오븐에 구운 정통 미국 가정식이다. 닭고기 살과 다양한 야채가 들어간 진한 크림수프와 그 위에 얹혀진 패스츄리 파이는 달콤하고 버터맛이 진해 그냥 먹으면 파삭하고, 그대로 수프와 함께 먹으니 땀이 나고 든든하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아플 때 해주는 음식이구나 싶었다.

3월 중순, 봄소식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렸다. 겨울보다 무서운 환절기, 식상해진 음식에 대한 입맛을 살리고, 후끈! 땀도 흘릴 수 있는 음식을 사이바나에서 즐겨보자. <img alt="arrow icon" data-bbox="845 775 875 790"/>

- 가격 : 케이준 치킨 샐러드 11,500원/ 루이지아나 치킨 파스타 13,900원/ 치킨 팟 파이 12,800원
- 영업시간 : 오전 11시30분~오후 9시(오후 3시~5시 브레이크 타임, 월요일 휴무)
- 위치 : 서래마을 초입 서래약국 골목으로 우회전하면 왼편에 위치
- 문의 : (02)536-4281